

[종합]

상·하위계층 소득격차 50배

노동부 4,762가구 조사
“사교육비 부담 커”

상하위 계층의 가구소득 격차가 최대 50배에 달하는 등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계층의 가구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0년 30%를 넘어선 뒤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 최하위 계층 가구의 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또 전체 가구 중 대학생이 아닌 학생자녀가 있는 가구의 66% 가량이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 정상화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노동연구원

원이 2004년 4천76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7차 한국노동패널 조사’를 분석, 지난달 30일 내놓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2003년 기준으로 최상위 1분위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9천208만원에 달한 반면 최하위 10분위 가구의 소득은 186만원에 그쳐 양계층간 소득 격차가 49.5배에 달했다.

최상위 1분위 가구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7년 30.3%, 98년 30.5%로 높아졌다. 99년 29.8%로 낮아졌다.

그러나 2000년 30.6%를 기록하며 다시 30%대로 진입한 뒤 2001년 31.3%, 2002년 31.4%, 2003년 31.7% 등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현대차 비자금 사용처 본격 수사

검찰 “로비 의혹 끝까지 파헤치겠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현대·기아차 정몽구(구속)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조성한 1천300억원대 비자금의 용처 수사에 본격 착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 회장을 주말과 휴일 소환하지 않는 대신 그동안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수사자료 등을 검토하면서 수사방향을 점검했다.

검찰은 또 정 회장의 아들인 정의

선 기차사 사장 등 현대차그룹 관련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 등에 대한 형 조처를 비롯 주주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했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주말과 휴일에는 구속된 정 회장과 비자금 조성에 관련한 현대차 임직원들을 소환하지 않고 수사팀 내에서 비자금 용처 규명과 로비 수사를 위한 방향을 잡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도 “비자

금 용처 수사는 철저히 장기간 하는 것도 불가하다”며 정·관계를 상대로 한 현대차의 로비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회장을 이번 주 초부터 본격 소환해 정·관계를 상대로 한 현대차그룹의 자체 로비 뿐만 아니라 ‘금융 브로커’ 갑재복씨와 김동훈 전 안전기획법인 대표를 통해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계열사 부채를 담보받는 과정에서 개입한 김동훈씨를 상대로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 금융감독원 고위 인사를 상대로 금융

로비를 했는지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대선을 앞둔 2002년 하반기에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글로벌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00억원이 무단으로 빠져 나간 사실에 주목, 정치권에 대한 자금 용도도 제공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정 회장과 김동진 현대차 총괄 부회장 등이 비자금 대부분을 현대차 분사와 계열사의 노무관리비와 현장 격려금, 임원들의 연봉 보전 등 사용 내역도 확인해나갈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韓·美 FTA협상 끝나면 韓·日 FTA협상도 추진” 한덕수 부총리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마무리한 뒤 중단된 한일 FTA 협상의 완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한미 FTA 세미나에서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협상이 중단된) 한일 FTA도 적절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완결할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궁극에는 우리와 경제통합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경제 상대국들이 한국을 매개로 간접적인 통합을 이루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우리 경제 발전사에서 매우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발전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현재 1만6천달러인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8년에는 2만달러, 2012년에는 3만달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런 소득 증가는 개방과 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선택한 것이 바로 한미 FTA”라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경북국 수문장 교대식

조선시대 복장을 한 군인들이 수문장 교대식을 하고 있다. 이날 수문장 교대식은 1469년 조선 세종 때 수문장 제도가 법제화된 사실에 근거해서 복식과 의장물을 재현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경북공에서 열린 조선시대 궁성문 개폐 및 수문장 교대식에서 조선시대 복장을 한 군인들이 수문장 교대식을 하고 있다. 이날 수문장 교대식은 1469년 조선 세종 때 수문장 제도가 법제화된 사실에 근거해서 복식과 의장물을 재현했다. /연합뉴스

1면 ‘최경주인터뷰’서 계속

▲SK텔레콤 오픈에 임하는 각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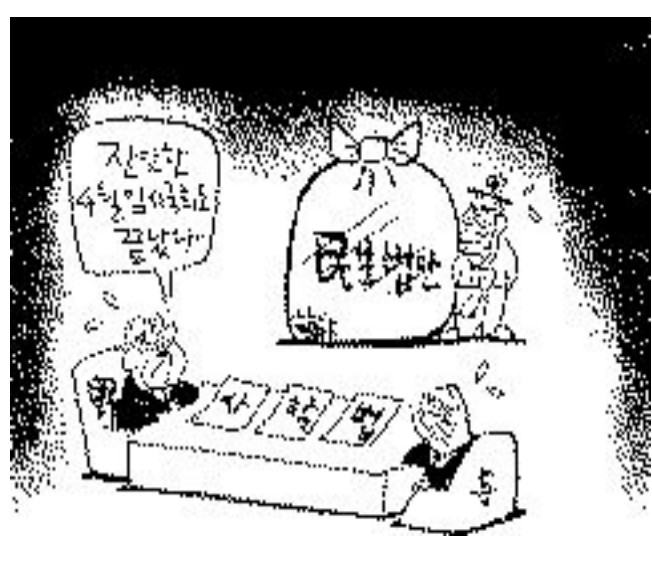
-비록 지난 대회 챔피언이지만 관건은 인내심이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다. 순위는 그 다음이다. 그동안 연습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메이저 4개 대회에 우승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아시아 골퍼 중에는 한명도 없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해가 뜨면 골프채를 잡고 해가 지면 골프채를 내려 놓는다. /연합뉴스

빛의 만능

- 김중두



더 잔인한 5월 만들 모양

외환은행 ‘헐값매각’ 관련 靑 권오규수석 소환 검토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주영환 전 청와대 행정관 소환조사에 이어 권오규 경제정책수석(당시 정책수석)에 대한 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지난달 30일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주 전 행정관 조사를 통해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의 역할에 대한 기초조사가 이뤄졌다”면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해 주 전 행정관의 상당자인 권 수석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권 수석에 대한 조사를 어떤 형태로 할 지는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해 직접 소환조사대신 서면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감사원은 전날 조사에서 주 전 행정관이 ‘10인 대책회의’ 참석전후 통상적인 보고절차를 거친 점을 고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청와대의 영

향력 행사여부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정황 파악을 위해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국 등 ASEAN 9개국 양자간 무역협정 타결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9개 회원국은 지난달 23일부터 28일 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양자간 상품무역협정을 타결했다고 29일 외교부상부 통상교섭본부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ASEAN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2010년까지 각각 수입의 90%에 해당하는 품목(수입액과 품목수 기준)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2016년까지 나머지 7%에 대한 관세를 0~5% 수준으로 내리게 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최락도 前의원 영장 신청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지난달 30일 조재환(57·구속) 민주당 사무총장에 게 공권 침탈과 함께 현금 4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최락도(68) 전 민주당위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경향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지난 달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흥은동 G호텔에서 조씨를 만나 “김제직장 공천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한 뒤 밤 9시 50분께 이 호텔 컨벤션센터 앞에서 현금 4억원을 든 사과상자 2개를 조씨의 승용차에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장성군공고 제2006-156호

분묘개장공고

농민들 유봉원할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분묘에 해당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 관하여 제23조, 제24조 및 분묘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후 가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에 개장을 하지 않으면 관제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의개장허용을 공고합니다.

※주거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에서 제외합니다.

2006년 5월 1일

장성군수

- 공 사 명: 수산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유촌도로 확포장공사
- 분묘의 소재지 및 가수 수산 농어촌도로-정선군 동하면 용정리 산-1(27) 유촌도로-정선군 삼계면 신거리 278-1(27)
- 개장사유: 수산 농어촌 도로 및 유촌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
- 공고기간: 수산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산문 개제일부터 3개월 유촌도로 확포장공사-산문 개제일로부터 2개월
- 개장방법: 유언분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이 신고후 개장 무언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임의개장(정선군 공동묘지에 인적)
- 이장장소: 수산 농어촌도로 확포장-정선군 용화면 남산리 신96(정선군 공동묘지) 유촌도로 확포장-정선군 삼계면 화산리 신14(정선군 공동묘지)
- 신 고 처: 장성군청 건설과(061-390-7487, 7488, 393-0449)

무담보 무보증

가계당좌어음할인금전

010-3144-5830

어음가계 담보

어음 1,000만원 이하 환영 [月2~5.5%] (등록업체)

010-3009-6633

철저한 독일인의 장인정신

독일보청기

독일보청기백화점

011-610-10833

공무원 대출 (직장인)

공무원, 교직원(공립, 사립), 군무원

080-500-6620 (무료전화)

산행안내

▲명동산악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108m 5월 14일(월) 07시 송정공원, 08시30분 광주역, 08시20분 문에회관으로 출발

▲기동산악회 보성 일출산(원쪽쪽) 5월 13일(토) 08시 송정공원, 08시30분 광주역, 08시20분 문에회관으로 출발

▲광주대정산악회 정선군 보성 일출산(원쪽쪽) 5월 13일(토) 08시 송정공원, 08시30분 광주역, 08시20분 문에회관으로 출발

광고접수안내

구인·구직·운전·모임·초상·영양·모임

011-602-3515

광주자연보존산악회

광주자연보존산악회 5월 14일(월) 07시 송정공원, 08시30분 광주역, 08시20분 문에회관으로 출발

011-602-3515

출장뷔페·도시락납품·위탁급식

회갑, 칠순·팔순 잔치, 병원개원식, 성당·교회 결혼식 음식, 정년퇴임식, 개업식·기념식

파티외식산업

011-602-3515